



군종주보

2019년 6월 30일(제935호)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신앙은 주님의 부르심이지 우리의 동의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언젠가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매우 불경스럽고 죄스럽지만 조용히 십자고상을 손에 쥐고 예수님께 따진 적이 많았습니다. 짧은 사제로서의 삶이지만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조용히 손에 쥐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부로 살게 하셨으면 책임지셔야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그런 험한 일(?)을 겪으시고도 모든 일을 청하는 대로 당신 뜻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사제로, 신앙인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누군가는 평신도로, 사제로, 수도자로 각자의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동의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다른 태도를 가져옵니다. 누군가 억지로, 강제로 시킨 것이라면 그를 탓하거나 따질 수도 있고,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한 순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탓하기도 그렇고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애매해집니다.

바로 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오늘 우리가 들은 구약의 1독서와 신약의 복음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와도 되겠냐고 청합니다. 그에 엘리야는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하며 허락해줍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장사도 죽은 이들에게 맡기라고 하시고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다녀오겠다는 이에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며 매정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속된 말로 하라하면 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나 예언자가 있지요.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도망쳤다가 고래 배 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다가 결국 그 일을 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되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마태오 복음 19장 16절부터 나오는 부자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셨지만, 그 젊은이는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초대는 하셨지만 떠나간다고 다시 잡지는 않으셨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라는 2독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죄에서도, 죽음에서도,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서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따르고 있으니 이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선택했으니 과거를 돌아보며 갈팡질팡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도 찾아오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선택대로 기쁘게 살아갑시다. 아멘.



김준겸(요한보스코) 신부
독포해군(3월디) 상당 주임

제 1 독 시

1열왕 19,16ㄴ.19-21

회 답 송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제 2 독 시

갈라 5,1.13-18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복 음

루카 9,51-62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유문석 요한



성인명: 유문석 요한 (柳文碩 John)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84-1801년

‘문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유문석(柳文碩) 요한은, 전라도 전주의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거주하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1784년에 태어났다.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인 유항검 아우구스티노가 그의 부친이고, 유중철 요한은 그의 형이며, 이순이 루갈다는 그의 형수가 된다.

유 요한의 집안에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부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가 경기도 양근에 살던 인척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유 아우구스티노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널리 교리를 전하였고, 그의 집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다. 따라서 유 요한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

1795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초남이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유문석 요한의 나이는 열한 살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그의 형인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가 동정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고 혼인을 하였다. 1801년 박해가 일어났을 때, 초남이 마을에서는 유문석 요한의 부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가 가장 먼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이어 유중철 요한과 친척들이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혔다. 이때 유문석 요한은 다행히 체포되지 않았으므로 여름 내내 전주 옥을 오가며 형에게 음식을 전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9월 중순 무렵에는 유 요한도 남은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히고 말았다.

이어 전주 관장은 유문석 요한과 그의 가족에 대한 판결을 조정에 요청하였고, 조정에서는 곧장 이를 담당할 관리를 전주로 파견하였다. 그 결과 유 요한은 11월 14일(음력 10월 9일)에 옥에서 끌려 나와 형 유중철 요한과 함께 교수형을 받았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이때까지 그는 혼인하지 않았었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들을 잘 돌보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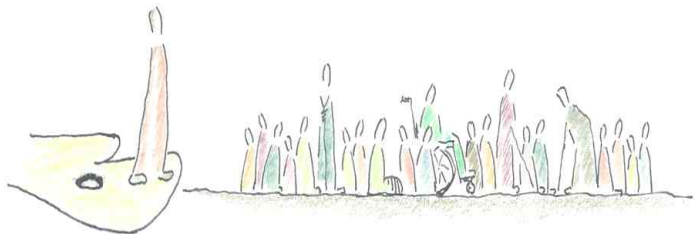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어디에, 당신의
양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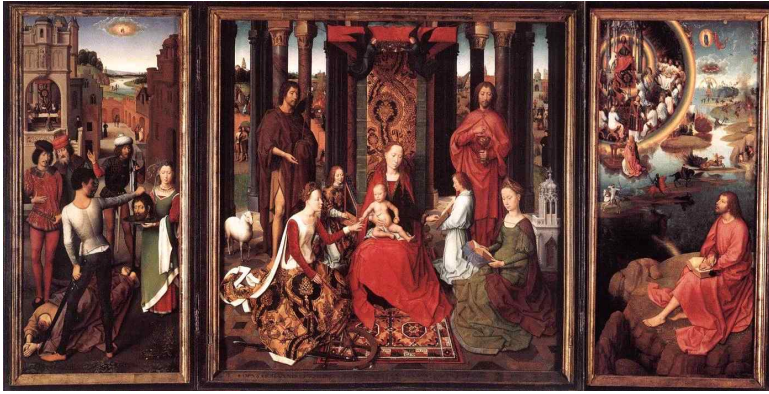
"눈을 돌려라.
그럼, 보일 거다."

"그들을
잘 돌보아라."



상화이야기

세레지 요한 제단화



그림을 펼쳤을 때의 모습

그림을 펼치면 걸면 무채색의 광경과는 전혀 다른 화려한 천연색의 장면들이 펼쳐진다. 일단 중앙 제단화를 먼저 보면, 열린 공간처럼 보이는 이곳에는 기둥 사이로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이 보이고, 중앙에는 성모님이 대리석 바닥과 기둥에 둘러싸인 옥좌에 앉아 계시는데 한손으로는 예수님을 무릎 위에 안고 계시고, 한손으로는 천사가 받치고 있는 책을 읽고 계신다 (혹은 책장을 넘기고 계신다).

한스 멤링, 1479년경 제작

오크페널 위 유희, 173.6x173.7cm(중앙제단화), 양원 제단화 각 176x78.9cm / 브뤼헤 상요한병원, 벨기에



다른 천사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며, 성모님 뒷면에 보이는 배경 위에는 작은 천사가 성모님의 천상의 관을 들고 궁중에 떠 있다.

아기 예수님은 한손에는 사과를 들고 한손으로는 모든 수녀님들의 수호성녀이자 참수형을 당하신(부서진 바퀴와 칼이 상징한다)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계시는데, 이는 수도직을 통한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상징한다. 그 맞은 편에는 모든 군인들의 수호성인인 성녀 바바라가 미사책을 읽고 있다. 그 뒤에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쪽에는 세레지 요한이 옥좌 양옆에 위치하여 있다. 모든 성인들은 각기 자신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함께 등장한다.

이 그림은 전형적인 성스러운 대화(sacra conversazione)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차분하고 경건하게 그려진 인물들이 기도와 묵상 속에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그려내었고, 이는 관람자와 신자들의 묵상 속에서 천상의 세계를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3주일: 해군중앙 박종식 신부

◆ 교구장 동정

- 신선대(해군작전사)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30일(주일)

◆ 군중부원회 월례미사

때·곳: 7월 1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군중교구 '잇숨 생기미'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